

붙임 1)

2017년 종로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요구안

○ 2016년 종로구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구성비	2015년	구성비	증감	증감율
종로구	340,461,479	100.00%	323,505,247	100.00%	16,956,2329	5.24%
복지환경국	132,461,479	39.0%	168,985,521	52.24%	36,192,448	-21.42%
사회복지과	26,886,556	7.9%	23,668,460	7.32%	3,218,096	13.60%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8,566,153	2.52%	8,707,996	2.69%	-141,43	-1.63
자립생활센터 지원	47,025	0.01%	37,025	0.01%	10,000	27.01

○ 2016년 종로구 예산 3,400억으로 전년 대비 5.2% 증감

○ 사회복지과 예산은 269억으로 종로구 전체예산의 7.9%, 전년 대비 13.6% 증가
사회복지과 증감율 13.6%는 전체예산 증감율 5.2%의 2배 이상

○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예산은 85억으로 전체예산의 2.5%, 전년 대비 1.6% 감소
이는 장애인연금사업이 2015년 대비 4억4천만원(11.7%) 감소함에 따름

○ 종로구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은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타 자치구의 경우 성북구 24개, 성동구 21개, 은평구 18개로 종로구 장애인복지 사업이 다양성 부족

○ 2016년 종로구 재정자립도 55.0%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중구 다음으로 높음, 이와 더불어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형성의 선도적 역할 기대

- 2017년 종로구 장애인정책 제안 -

1.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시간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0.01% 증액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

1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및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 서울시 관할 38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3,252명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 환경 지원연구(이하 탈시설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함, 또한 주거 및 활동보조, 소득이 지원되면 시설에서 나갔다고 70%가 응답함

○ 서울시는 2013년 7월 「서울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산하 장애인 600명을 탈시설하겠다는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은 44개소 3,755명이 거주함. 이 중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은 2개소로 683명(문혜 장애인요양원 312명, 은혜 장애인요양원 371명)으로 전체 서울시 거주시설장애인의 18.2%가 종로구의 관리감독에 있음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9년부터 2개의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자립생활주택의 위치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이 적은 강북구, 성북구로 타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음

○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자립생활주택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곳은 성동구, 은평구, 성북구 등 다수 자치구가 있음

○ 성동구는 2009년부터 관내 ‘자체’ 체험홈(자립생활주택‘가’형)의 운영비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임대보증금 3,000만원 지원함, 또 ‘자체’ 자립생활가정(자립생활주택‘나’형)의 임대보증금 1억과 시설초기비용 5천만원 지원함

○ 은평구는 자립생활주택 3곳의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음

○ 서울시 탈시설 계획과 더불어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683명의 탈시설화 정책에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라며,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등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을 ‘사람중심’ 종로구에 마련할 것을 요구함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 구비추가지원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를 월10시간 → 월20시간으로 확대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구비추가시간 신설

○ 2014년 시범사업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구비지원 대상자는 2015년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편입됨, 종로구는 현재 4명의 대상자가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구비 24시간 지원 대상자는 없음

○ 2016년 종로구 구비추가지원은 기본급여 월20시간 13명, 추가급여(1인가구) 월10시간 4명이고 예산은 4,800만원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종로구 2016년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35억으로 성동구와 비슷한 수준이나 구비추가지원 예산은 성동구 1억2천만원의 1/3 수준인 4,800만원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활동지원예산	전체예산대비 구성비	활동지원예산 구비 추가	기타
종로구	3,502,485	1.40%	48,000	기본급여 월20H 13명 추가급여 월10H 4명
성북구	6,208,026	0.95%	111,006	구24H 6명 기본급여 월20H
성동구	3,692,486	1.20%	120,176	구24H 월130H 2명 기본급여 월20H 50명
은평구	7,582,949	1.40%	200,000	기본급여 월20H 추가급여 월20H

○ 성동구는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외 월130시간 구비추가지원으로 2명 대상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판정회의’를 통해 선발한 성인발달장애인 50명에게 구비추가 월20시간을 지원하고 있음

○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 월10시간은 타 자치구의 구비24시간지원 및 추가급여 월20시간이 비하여 낮은 수준임, 따라서 2017년 종로구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추가급여를 월 10시간에서 월20시간으로 확대를 요구함

○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진 별도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판정회의(판정도구)가 필요함,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에 욕구가 매우 높음

○ 2014년 말 기준 종로구 장애인 6,402명 중 지적장애 350명, 자폐성장애 86명으로 종로구 거주 발달장애인수는 436명임(6.8%), 이 중 4.5%에 해당하는 2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비추가지원 월20시간을 요구함

○ 성동구는 발달장애인 737명 중 6.8%에 해당하는 50명에게 구비추가지원 월20시간인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종로구 활동지원 구비추가 예산 : 88,560,000원

활동지원급여 단가 9,000원 기준

$9,000\text{원} \times (\text{기존의})\text{기본급여 월20시간} \times 13\text{명} \times 12\text{월} = 28,080,000\text{원}$

$9,000\text{원} \times (\text{기본급여+추가급여 월40시간}) \times 4\text{명} \times 12\text{월} = 17,280,000\text{원}$

$9,000\text{원} \times (\text{발달장애인})\text{기본급여 월20시간} \times 20\text{명} \times 12\text{월} = 43,200,000\text{원}$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할에 맞는 예산 편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종로구 전체예산의 0.01% 증액
- 운영비에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1명) 포함

○ 2016년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4,700만원(운영비 보조)으로 전체예산의 0.01%, 2015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하여 증감율 27.0%

○ 2016년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중 ‘종로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16억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8%이고 2015년 대비 1억 증가하여 증감율 6.74%, 장애인복지관 지원은 시비(90%)와 구비(10%)로 매칭펀드 되며 종로구 지원예산은 1억6천만원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의 3.4배 지원

○ 2016년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중 ‘푸르메재활센터 지원’은 7천만원(운영비 보존)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1.5배 지원

○ 성동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를 비롯하여 프로그램비와 자체 자립생활주택에 대해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은평구는 자치구 내 2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6,000만원과 공모사업 방식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비 5,00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종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은 전체예산의 0.01% 수준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낮고,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재활센터 예산의 절반 이하의 수준임

○ 따라서 성동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수준인 전체 예산 대비 0.02%로 2017년 종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요구함

(단위 : 천원)

구분	종로구	구성비	성동구	구성비	은평구	구성비	성북구	구성비
2016년 전체예산	340,461,479	100%	389,669,583	100%	540,000,000	100%	515,531,580	100%
장애인복지	8,566,143	2.52%	10,586,111	2.79%	20,495,597	4.04%	14,403,364	2.27%
자립생활센터	47,025	0.01%	77,160	0.02%	111,500	0.02%	108,000	0.02%
장애인복지관	1,650,821	0.48%	1,768,212	0.45%	1,736,189	0.32%	2,594,126	0.50%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종로구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 지원
- 지역사회 내 장애인 접근성 및 장애인 이동권 확대

○ 본 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 종로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2014년 11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공구리를 치자! 턱을 없애고 경사났네> 기자회견 실시하여 마로니에공원 공연장과 대학로 인도에 경사로 설치 직접적 변화를 만들었음

○ 종로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자치구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5:5 매칭펀드로 연간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종로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만 8,500만원 지원하고 사업비 즉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예산은 없는 상황임

○ 성동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으로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신청과 설치예산을 연간 2,000만원 지원하고 있음

○ 은평구도 장은사(은평구 장애인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설치예산을 연간 2,000만원 지원하고 있음

○ 역사문화 관광 중심 종로구의 무장애환경 구축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요구함

○ 종로구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10~2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비용 약100만원 지원

○ 2017년 요구 예산 : 편의시설 설치대상 10곳 × 100만원 = 1,000만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확대

- 제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동개최 제안
-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 약속 이행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노들장애인야학 확보된 추가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제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종로구와의 공동개최 제안 -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장애인들이 일상에 가지는 어려움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그 영상을 독립영화로 제작하는 과정은 의미있는 활동임

○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장애인인권 영화’를 지역사회 내 상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종로구 주민들의 장애인인권 감수성을 향상에 기여하는 ‘제1회 종로구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종로구와 공동개최를 제안하며 이에 예산 지원을 요청함

○ 장애인인권영화제는 2일 과정으로 10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함

-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 약속 이행 -

○ 현재 종로구는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지원예산을 ‘종로구 장애인체육회’에 일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 제2회 종로노들보치아대회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인 ‘종로노들 보치아교실’는 2013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보치아 예산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종로구 장애인체육회는 2016년 예산 500만원 인상을 약속하였으나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됨

○ 따라서 2017년 종로노들 보치아 예산은 인상을 약속한 500만원을 포함한 1,600만원을 종로구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함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노들장애인야학 확보된 추가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40.4%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채 살아가고 있음,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신입학생들이 노들장애인야학을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탈시설 하는 중증장애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야학을 찾아오는 학생의 수가 많아지고 있음(2014년 등록학생 60명에서 2015년 24명이 증가하여 등록학생 84명), 교실공간을 추가확보 하여 특수학급 법정정원에 맞춘 분반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2015년 부족한 교실공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시 예산지원(1억1천만원)으로 4층 공간을 추가 확보한 상황임, 하지만 4층 공간이 확보되었으나 서울시 예산으로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2014년부터 시작한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의 급식으로 인한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과 함께 야학학생들의 급식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에 2017년에 기존 운영비 지원예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의 인상을 요청함